

한국에 있어서 日本의 水子供養의 수용과 변용에 관한 고찰 — 「M寺」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석 란*

目 次

- I. 서 론
 - II. 일본의 수자공양
 - III. 한국의 수자령천도제
 - V. 결 론
-

I. 서 론

“2002년 광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 ‘하얀 방’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낙태아의 원한을 소재로 생명의 소중함을 주제로 다룬 공포영상물이다. 이는 낙태아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태아의 생명관을 소재로 다룬 영화가 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올려질 만큼 우리사회의 낙태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그 실태는 ‘태아 4명중 1명 낙태’라는 어느 일간지의 머리기사¹⁾만 보아도 그 심각성의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영화를 소개하는 글 속에서 낙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낙태아의 혼령을 ‘수자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수자령’은 지금까지 우리들 귀에 익지 않은 낯선 단어이다. 그러나 ‘수자령’이라는 단어에 연상되는 일본의 민속이 있다. 그것은 ‘水子供養’이다. 水子供養은 낙태아와 관련된 일본의 민간신앙으로 ‘水子(미즈고)’라는 것은 낙태아를 의미하며 공양은 우리나라의 제사를 뜻하는 말이다. 즉 수자공양

* 울산대학교 강사 일본민속학

1) 한겨레신문 [사회면] 1999.2.10

은 낙태아를 위한 사자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에서 이 영화의 소개 글 속에서 표현하는 ‘수자’와 일본민속에서의 ‘수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 외에 ‘수자’와 관련되어 눈길을 끄는 것이 또 있다. 일본의 종교학회에서 한국의 낙태아(수자)와 관련된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것은 후지가미 교코(瀨上恭子)의 ‘한국불교의<수자공양>’²⁾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불교사찰을 통해서 도입된 일본의 수자공양이 ‘수자령천도재’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사찰을 비롯한 각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또 수자령천도재를 의뢰하는 당사자들은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자행하고 있으며, 그 종교인을 비롯한 한국사회에 있어서 낙태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한국사회에서는 특정한 종교교리보다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유교개념이 상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개념은 남아를 선호하는 유교적 사상이므로 종교계에서도 그 개념을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불교사찰에서의 생명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첫 부분에서 한국의 수자공양(수자령천도재)은 일본의 수자공양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지가미 교코가 말하는 일본의 수자공양에서 도입된 한국의 수자공양(수자령천도재)은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언제부터 한국사회에서 행해지게 되었는가.

한국의 낙태아를 위한 사자의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행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앞서 소개한 종교학적인 입장의 후지가미 교코의 연구보고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수자령천도재가 도입된 시기와 그 이유를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수자령천도재를 실제로 행하고 있는 사찰 중에서 가장 선행되었다고 보여 지는 사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일본수자공양이 어떻게 한국불교계에 수용이 되었으며 또 한국의 수자령천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일본의 수자공양

후지가미 교코(瀨上恭子)가 말하고 있는 한국불교계가 도입한 일본의 수자공양’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일본의 수자공양이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2) 瀨上恭子, 「韓國仏教の<水子供養>-民衆仏教の生命論と仏教經典-」 『宗教研究 第76巻』(日本宗教學會, 2002년)

로 한다.

낙태는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나고 있으며 일본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일본은 1958년에 우생보호법으로 인공유산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였다. 그 후 1968년에는 미국이, 1970년 초반에는 유럽제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가 그 뒤를 이어 낙태법의 규제완화 또는 인공유산의 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이 점에서 낙태와 관련된 법률에 있어서는 일본은 자유진영에서 가장 선구적 역할을 한 셈이 된다. 그러나 특이할 점은 일본에는 낙태아와 관련된 사자의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유산을 포함한 낙태아를 위한 위령제로서 “水子供養”이라고 한다.

水子の 일반적인 의미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 ‘갓난아이·유산한 아이를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불단에 아이의 영혼이 모셔져 왔으며, 희미하기는 하지만 어린이의 생명에 대한 의식이 존재한다고 한다.³⁾ 그러나 사자로 인정하지 못했던 중절아 즉 사망한 태아는 사자의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⁴⁾ 이런 위치의 수자가 사자의례의 대상이 된 것은 불과 30여 년 전부터이다. 그 원인은 일본근대법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후 혼란기의 근대일본은 위험한 불법시술을 방지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1948년(昭和23년) 9월에 우생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형법의 낙태죄 징역 1년 이하를 남겨둔 채 경제상황 또는 신체상황에 따른 예외로 22주미만의 태아의 낙태가 합법화되었다. 그 후 1952년(昭和27년)에 개정되어 낙태심사가 간편해지고 신체적 이유는 물론 경제적 이유가 문제가 되어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되었다.⁵⁾ 특히 1972~1974년과 1978년~1982년에 우생보호법 개정의 심의가 크게 문제가 되었다. 森栗茂一에 의하면 이 시기와 水子供養의 붐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법률적으로는 「묘지·매장 등의 법률」에 의하면 임신 4개월 이후에는 화장이나 토장을 할 필요가 있다.⁶⁾ 이것은 법윤리적으로도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인간)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인간의 죽음인 이상 공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태아의 인간화가 점점 의식되면서 수자에 대한 공양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수자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시기적으로 전쟁 중에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갱년기 장애현상과 맞물린 것이다. 낳아서 길러야 할 아이를 낙태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들의 신체에 발생하는 현상이 수자의 탈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수자공양의 동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와 더불어 미혼여성이나 혼외관계로 인한 임신에 대한 낙태, 그리고 경제사정 또는 이혼으로 인한 낙태 등도 그 동기로 작용했다.⁷⁾ 이와 같

3) 최길성. 앞의 책. p200.

4) 高橋三郎. 「二つの水子供養」 『水子供養』(行路社, 1999년). p114.

5) 森栗茂一. 「水子供養の發生と現状」,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57集』(國立歴史民俗博物館, 1994년)의 재인용. 「つるしあげられた墮胎天國日本」 『週刊文春』1960. p56

6) 森栗茂一. 「水子供養の發生と現状」, 『國立歴史民族博物館研究報告 57集』(國立歴史民族博物館, 1994년). p102-104.

7) 森栗茂一. 앞의 책. p105

은 수자에 대한 공양은 낙태와 관련된 사회현상으로 전통적 불교에서는 없었던 민간신앙(水子신앙)이 1970년대에 발생하여 1980년대에 붐을 일으키고 신앙으로서 정착되어 있다.⁸⁾ 그것은 전쟁직후의 많은 중절여성들이 일본의 전후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수자공양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수자공양은 1970년대(昭和40년 중반)부터 그 현상이 발생되면서 1980년대(昭和50년대)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⁹⁾ 그것을 종교단체가 흡수하여 사자의례의 의식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야마구치현 하기시의 수자공양 조사에 의하면 모든 종교단체에서 수자공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종교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자공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불교단체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종파에서 수자공양의 의뢰를 수락하고 있으나 선종과 같이 종파 전체가 수자공양의 의뢰를 거부하는 종파도 있으며 정토신종과 같이 동 종파 내에서도 수락하는 사찰과 수락하지 않는 사찰이 있다. 그 이유는 해당종파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경은 살아있는 자를 위해 읽혀지는 것이라는 교리 때문이다. 그러한 교리를 받들고 있는 정토신종 사찰 중에서 수자공양의 의뢰를 수락하고 있는 사찰의 입장은 종파의 교리는 인정하지만 낙태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낙태여성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의뢰를 수락하고 있다.

또한 불교사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자공양을 의뢰자들의 목적에 따라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그 하나는 낙태아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현재와 미래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간신앙차원의 요소를 가지는 수자공양형이며, 또 하나는 근대화에 따른 생명의 존엄성에 입각한 인간의 윤리차원의 요소를 띠는 수자공양형이 있다.¹⁰⁾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신앙차원의 수자공양형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자신의 신변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운을 수자의 탈이라고 생각하여 그 불운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액풀이형'과 수자도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선조라는 사고에 입각한 '선조공양형'이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 윤리차원의 수자공양형은 태아를 완전한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여 '생명우선' 논리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발동하여 이루어지는 '참회형'이 있다.

수자공양의 의례범으로써는 일정하게 정해진 방법이 없다. 개인의 의뢰를 수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일자를 정해 공동으로 접수·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수자공양의 의례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대부분이 본당이지만 특정한 장소를 마련하여 행하는 경우도 있다. 공양물이나 공양 시에 쓰여 지는 도구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각 종파에 따라서도 그 차이점을 보이며 같은 종파 중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자적인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본의 수자공양은 비전통적이며 기존의 불교의식에서

8) 최길성. 앞의 책. p199

9) 高橋三郎. 앞의 책. p285-286

10) 김석란. 「일본의 수자공양의 사례연구」. 『일본문화연구(8)』(동아시아일본학회, 2003년) p83-84

는 벗어나 주변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¹⁾

Ⅲ. 한국의 수자령천도재

1. 수자령천도재의 동기와 그 시기

이승에서 그 삶을 다하고 죽음에 이른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은 복잡한 절차를 통해 고별의 의례를 거행한다. 그러나 그 영혼이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영혼이라면 그와는 다르게 별다른 의례 없이 화장이나 매장 등으로 소홀히 다루어진다. 그것이 임신중절이나 유산의 경우라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이와 같이 장례절차의 정도조차도 자격조건에 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아이가 제사의 대상이 되어 모셔졌다는 흔적이 없다.¹²⁾ 더구나 낙태아를 제사지낸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를 위한 현장조사에 의하면 이미 한국불교의 각 사찰에서는 낙태아를 위한 사자의례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후지가미 교코가 말하는 한국의 ‘수자령천도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수자공양이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행해지게 되었으며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불교사찰에서는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7월 보름날인 백중이 되면 불교사찰로써는 큰 명절 중의 하나인 만큼 망자들의 혼을 달래는 천도재로 분주하다. 그 때 각 가정에서는 사찰의 법당에 마련된 영가단에 선대의 위패를 모셔 제사를 지내게 된다. 대부분 본당의 한쪽 편에 영가단을 마련하고 백중기간동안에 그 영가단이 위치하는 벽면에 천도를 의뢰하는 망자들의 위패가 붙어 있다. 위패에는 위패의 주인인 망자의 이름이 적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름 없는 영가의 위패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름 대신 대부분 ‘수자령 영가’ 혹은 ‘태아령 영가’라고도 쓰여 있다. ‘수자령’과 ‘태아령’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것만으로도 ‘수자’는 ‘태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천에 위치하는 모 사찰의 홈페이지에도 “수자(水子)라는 말의 뜻은 출산 직후의 아기 혹은 태아라는 의미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수자령천도재’는 유산이나 낙태아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한 천도의식이며 한국불교사찰에서 그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한국사회에서 태아의 영혼을 위한 ‘수자령천도재’라는 사

11) 김석란. 앞의 책. p83.

12) 최길성. 「일본의 미즈고(水子)공양과 동아시아의 男兒選好」, 『비교민속학(17)』 (비교민속학회 1999년).

자의례가 언제부터 행해지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시기에 대해 물으면 그에 대해 사찰 측에서는 대부분 ‘오래 전부터’라는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의 몇 사찰에서는 그 시기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한 사찰 가운데 ‘수자령천도재’가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고 보여 지는 곳은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하는 M사라고 하는 사찰이다. M사는 초로의 주지와 주지를 도와 사찰을 관리하는 두 노파가 구성원의 전부인 조그만 사찰이며 누군가의 안내를 받지 않고는 찾아갈 수 없는 산골에 위치하고 있었다. 산비탈 중턱을 깎아 자리 잡은 경내에는 아주 작고 낮은 본당과 두 노파와 주지가 기거하는 부엌이 딸린 작은 방 두개로 된 한 채의 주거공간이 협소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나란히 그 옆으로 조그맣게 신축 중인 건물이 있다 그것은 주지의 서재와 집필장으로 쓰여 질 것이라고 한다. 낙태아의 영혼을 천도하는 한국의 ‘수자령천도재’는 이 작고 소박한 사찰의 주지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M사의 주지는 M사와 함께 서울에 있는 K사라는 포교원 규모의 작은 사찰과 부속 출판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평소 글쓰기를 즐겨하는 주지는 그 출판사를 통해 불교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발간된 주지의 저서 가운데 『아가야 용서해다오』¹³⁾라는 서적이 있는데 ‘부모가 책임져야 할 중절아의 영혼’이라는 부제목을 보아도 한눈에 낙태아와 관련된 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도 그 서적을 보고 M사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60대 후반의 현재 주지는 선대인 형님이 운영하시던 사찰을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수자령천도재’는 현재의 주지가 사찰운명을 맡고 난 후에 시행하게 된 것으로 80년대 초에 일본불교를 견학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일본불교를 견학할 당시 한국불교계나 사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빨간 턱받이를 한 아가지장보살과 낙태아를 위한 위령제인 수자공양을 견학하게 된 것이다. 귀국 후 주지는 한국에서도 낙태아를 위한 천도재의 필요성을 느껴 잉태의 순간부터 한 생명임에 분명하며 그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죽음을 당한 태아의 혼령을 위로하자는 선도적인 차원에서 수자(水子)에 관한 일본서적의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그것을 여성 신도들에게 소개하여 그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아가야 용서해다오』라는 서적은 1983년에 출판하게 되었으며, 1997년의 7쇄본까지 발행되어 있다. 그 책자에는 원인 모를 불행에 겪고 있던 일본의 여인들이 과거의 ‘수자’가 원인이라는 판단을 하고 ‘수자공양’을 하게 되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많은 실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자령’과 관련되는 역사적 기록을 소개하고 있으며, 수자들의 무덤인 ‘수자총(水子塚)’과 관련되는 내용의 기록도 소개하고 있다.

주지는 이 책을 통해 한국사회에 만연하는 낙태로 인해 수많은 여성이 원인 모를 병이나 불행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은 낙태아의 원혼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관세음보살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을 일본의 수자공양을 경험한 여성들의 사례를

13) 석묘각. 『아가야, 용서해다오』(도서출판 강경도감, 1997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낙태의 행위가 죄업이 되며 낙태아의 영혼에 대한 천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타태경(墮胎經)이라는 불경을 통해 그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라이자그리하성에 계시었다

‘도중에서 온 몸에는 가죽이 없어 핏은 살덩이 같은 몸이 큰 한 중생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중생은 과거 세상에 이 라이자그리하(왕사성:王舍城)에서 스스로 그 태(胎)를 떨어뜨렸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 이미 백천세 동안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고 지금 그 몸을 얻었으나 남은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계속 받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마하야 목갈라야이나 소견은 진실하여 틀림이 없다. 그렇게 알아 가져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해 마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아들여 행하였다.¹⁴⁾

1985년 『아가야 용서해다오』를 출판한 후 서울의 K사에서 약 500명의 의뢰자들의 의뢰로 약 1000여 명의 수자를 천도하였다. 이렇게 직접 의뢰하여 천도재를 올리는 것 외에 많은 전화상담과 서신상담 및 개인상담도 이루어졌다. ‘수자령 천도재’의 의뢰자는 대부분이 불교신자이지만, 간혹 비불교도도 있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도들도 있으며, 심지어 수녀도 있다.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불운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스님의 책을 읽고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타인의 판단이 아닌, 정확히 말하면 점성가나 무속, 이웃노인 등의 판단이 아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의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아기의 꿈(안거나 엮는 꿈)을 꾸 다음 액운(사고, 병)이 닦혔을 때 수자(낙태아)의 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의뢰자의 연령층은 5,60대가 가장 많으며 40대, 30대 순이다. 학력도 대졸, 고졸의 순이다. 이렇게 의뢰가 많았던 수자령천도재가 최근에는 연 10회 정도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최근에 국내 여러 절에서 수자령천도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지는 말한다. 불교계에서는 낙태아 천도재를 지내는 사찰로 잘 알려져 있으며 후지가미교회의 연구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전라도 보성의 D사 주지도 이 문제로 M사를 다녀갔으며 마산, 부산 등지에서도 승려들이 다녀갔다.

2. 수자령천도재의 방법

14) 석묘각 앞의 책 p113-114

모든 분야의 천도의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한국불교사찰과는 달리 일본불교사찰에서는 그 사찰만의 전문분야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사찰이 많이 있다. 수자공양을 전문으로 하는 사찰이라면 좀더 상징적인 것이 눈에 띌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야마구치현의 하기 시에서 비교적 수자공양으로 알려진 사찰과 같이 팔에 아기를 안은 큼직한 지장보살이나 발밑에 여러 명의 아기상이 놓고 있는 큼직한 지장상을 안치해 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또는 수자공양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거나 수자의 위패만을 안치하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 사찰들도 있다. 또는 야마구치 시에서는 관광코스에 들어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찰과 같이 특별히 수자공양을 전문으로 하는 사찰이 아니더라도 본당의 왼쪽 편 모퉁이를 돌아가면 2m 가량 되는 수자공양을 위한 지장상을 안치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참배하게 한다. 또 이런 지장상이 아니더라도 빨간 턱받이나 머리수건이나 모자를 쓰고 있는 조그만 아기 상을 흔히 볼 수 있다. 그것은 수자공양의 의뢰를 수락하고 있는 사찰이거나 수자공양을 전문분야로 하는 사찰일 가능성이 높다. M사에서는 그러한 상징적인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지만 법당으로 들어가면 왼쪽 편에 마련된 영가단이 있는데 그 곳을 살펴보면 영가단 위편 벽면에 붙어있는 수자령의 위패와 나지막한 단상에 놓여져 있는 우유병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찰에서는 항상 영가단에 우유병이 놓여 있다는 것이 다른 사찰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정도가 당 사찰에서 ‘수자령천도제’를 수락하고 있다는 유일한 상징물이다. M사에서는 특별히 수자령천도제의 의뢰를 받지 않아도 조석으로 수자를 위한 공양물과 경전이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영가단에는 우유병이 놓여 있다.

임신과 낙태는 여성의 신체에 나타나는 은밀한 현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되어 버린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상적인 관계의 낙태아이든 그렇지 못한 낙태아이든 낙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성들에 있어서는 숨기고 싶은 일이다. 더구나 떳떳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결과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M사의 ‘수자령천도제’는 대부분 시행자인 M사의 관계자의 도움으로 주지와 당사자만 참석하여 이루어진다. 그러한 차원에서 서울의 K사에서 받은 의뢰도 주변의 지인들을 피해 멀리 장성의 M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M사의 주지는 ‘수자령천도제’의 의뢰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의례법으로 천도제를 지낸다.

먼저 위패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름이 없는 수자의 위패는 수자라는 글귀 앞에 아버지 성을 붙여 작성하여 좌측에 父, 우측에 母의 이름을 적는다. 예를 들면 ‘김수자령영가’라는 위패의 이름을 중앙에 적고 그 좌우에 부모의 이름을 적는다. 그리고 부모의 이름 밑에 ‘기보’ 혹은 ‘위천’이라는 글귀를 적는다. 그것은 손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위해 공양할 경우이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복위’라고 적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님이 수자의 이름(법명)을 지어줄 경우도 있다. 위패는 아이 한사람에 하나씩 쓴다. 그러나 혼한 경우는 아니지만 특수직업여성의 의뢰로 한꺼번에 30명의 수자를 천도한 경우도 있다. 그 때

는 사정상 한 장의 위패에 합동으로 적은 적었다.

천도제는 그 기간에 따라 21일, 49일, 100일 동안 하는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결정은 스님이 하며 천도가 잘되지 않는 영가일수록 기간이 긴 것으로 한다. 이는 스님의 법력에 의한다. 가능하면 천도제 기간동안은 의뢰자를 참석하게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만 참석하게 한다. 의뢰자들의 60%정도가 부산, 마산, 대구 등지이며, 40%정도가 서울과 충청 호남권이다. 당사의 신도가 아닌 외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사람들은 스님의 책 『아가야 용서해다오』를 읽고 찾아온 사람들이다. 사찰 측에서는 의뢰자들에게 자기의 죄를 참회케 하고, 아기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도하기를 권한다. 때로는 대학노트에 寫經도 시키는데 “三世業障 願消滅 心中所望 速讀成就” 라는 문장을 쓰게 한다.

‘수자령천도제’를 지낼 때 바치는 공양물로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주로 이 절에서 놓여지는 것은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과일, 우유병과 베네웃, 손수건, 포테기, 장난감, 양말, 모자 등을 준비한다. 이 때 우유병은 수자의 수만큼으로 한다. 그 외는 일반 천도제와 마찬가지로 밥과 국, 나물 등을 차려 놓는데 어린아이의 천도제인 만큼 양을 적게 해서 차려 놓는다. 이들의 공양물과 위패를 모시고 혼령을 부르는데 “아가야 아가야 불쌍한 아가야”라고 하며 아기들의 영혼을 부른다. 그 다음으로 경을 읽고 아이영혼을 따라 온 아귀들에게 공양을 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경을 읽을 동안 의뢰자도 함께 경을 읊게 한다. 이 때 시아귀의 음식은 법당 바깥에 차려 놓는다

경전은 지장경, 법화경, 금강경으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읽는데 그 중에서 법화경을 가장 많이 읽고 있다. 그 이유는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불쌍한 영혼을 구제하겠다고 원을 세운 보살이기 때문이며, 법화경은 대승경전 중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경전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속에는 악인성불, 여인성불, 일체중생성불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화경에 의존하면 구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강경은 인간은 업보태생으로 나고 죽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기간 동안 몇 차례 M사를 방문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는 ‘수자령천도제’를 실제로 견학할 기회가 없었는데 2002년 8월 7일에는 의식이 행해질 거라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 그것을 견학할 수 있었다. 물론 사전에 의뢰자의 양해를 구한 후이다. 여기에서 그 사례를 잠깐 소개하기로 한다.

그 의뢰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53세의 여인으로 현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여인은 이 날 현재 남편과의 사이의 수자와 혼전에 생긴 수자를 합해 5명의 수자를 천도하기 위해서 M사를 방문하였다. 수자의 아버지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천도제를 위해 마련된 위패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패를 작성할 때 아버지의 성을 기입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작성한 수자의 위패에는 윤씨 성이 1명, 김씨 성이 3명, 이씨 성이 1명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수자의 아버지가 적어도 3명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이 여인은 결혼 이후 남편의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했으며 남편이 여러 명의 여자와 오래 전부터 외도를 해오는 것이 동기가 되어 수자공양을 하게 되었다. 남편의 외도의 이유가 아내가 싫어서도 아니며 본인 스스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한다. 여인은 몇 년 전부터 서울의 모 사찰에서 일반 천도제와 함께 수자공양을 해 오던 중, 친구의 방문안을 갔을 때 친구로부터 『아가야 용서해다오』라는 책을 권유받아 읽게 된 것이 계기로 M사의 주지를 방문하여 ‘수자령천도제’를 의뢰하게 되었다. 의식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장의 위패를 영가단의 위 벽면에 붙이고 5명의 우유병과 함께 공양물을 받쳤다. 이날의 주지는 본불 앞에 앉고 여인은 본불을 향해 영가단 앞에 앉았다. 먼저 목탁을 두드리며 영혼을 부른 뒤 본불을 향해 2배하였다. 그리고 주지와 여인은 같은 위치에 서 영가단을 향해 방향을 바꾸어 앉아 법화경을 읽었다. 그 후 영가단을 향해 2배를 하였으며 다시 본불을 향해 경전을 읽고 2배를 한 뒤 천도제를 마쳤다. 천도제가 끝나고 여인은 주지를 향해 2배를 하였으며 주지는 여인을 향해 설법을 하였다. 이렇게 천도제를 마친 여인은 가슴 한구석의 응어리가 내려가는 듯 후련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IV. 결 론

한국의 ‘수자령천도제’에서 ‘수자’의 의미가 ‘태아’를 의미한다면 한국의 ‘수자령천도제’는 일본의 ‘수자공양’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 그것은 일본의 수자공양을 견학하고 돌아온 한 승려에 의해서 1980년대 중반에 한국사회에 소개가 되었으며, 낙태아의 영혼을 구제하고 그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을 구제하고자하는 차원의 천도제가 한국불교사회에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낙태아에 대한 천도의식은 한국불교사찰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천도방법에 있어서는 대상이 태아임을 감안하여 선조사자의례에 입각한 한국형 수자공양의 의례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수자공양이 ‘수자령천도제’로 수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낙태문제로 빚어지는 우리사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그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 현실적인 문제는 먼저 과거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나 핵가족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여아낙태를 종용하는 남아선호사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만큼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기혼여성에 있어서의 낙태라는 현실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낙태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수자령천도제는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활용·수용되었으리라 보여 진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일반인들의 귀에는 익숙하지 않은 ‘수자’라는 말이 한국불교사찰에서는 이미 낙태아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수자’라고 이름 붙여진 망혼도

천도재의 대상으로 한국불교사찰에 자리매김해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해본다. 더불어 한국불교에 수용되어 정착해 가는 과정에 있어 한국 실정에 따라 그 변용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사찰에서의 ‘수자령천도재 와 일본의 ‘수자공양은 어떤 양상의 문화적 변용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參考文獻】

- 김석란(2003년). 「일본의 수자공양의 사례연구」, 『일본문화연구(8)』(동아시아일본학회). p83-84.
- 석묘각(1997년) 『아가야, 용서해다오』(도서출판 강경도감)
- 최길성(1999년). 「일본의 미즈고(水子)공양과 동아시아의 男兒選好」, 『비교민속학(17)』 (비교민속학회). p200. p199
- 한겨레신문 [사회면] 1999.2.10
- 高橋三郎(1999年). 「二つの水子供養」 『水子供養』(行路社). p114. p285-286
- 淵上恭子(2002年). 「韓國仏教の<水子供養>-民衆仏教の生命論と仏教經典-」 『宗教研究 第76卷』(日本宗教學會)
- 森栗茂一(1960年). 「水子供養の發生と現狀」,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57集』.(國立歷史民俗博物館. 1994년)의 재인용. 「つるしあげられた墮胎天國日本」 『週刊文春』p56
- 森栗茂一(1994年). 「水子供養の發生と現狀」, 『國立歷史民族博物館研究報告 57集』.(國立歷史民族博物館). p102-104. p105

要 旨

今現、韓國の仏敎寺刹で、‘水子靈薦導齋’という慰靈祭が行われている。それは、墮胎兒を對象にしている慰靈祭である。韓國の中で‘水子靈薦導齋’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1980年代の半ばからである。それは日本の水子供養を見學してきたある僧侶により導入されたものと思われる。水子供養の見學から歸ってきた僧侶は、その意義と事例を紹介した本を出版することにより、墮胎の経験のある韓國の女性たちから關心を呼び起こした。韓國社會に墮胎兒を對象にする祭祀(供養)が受容されるようになった背景には、家族計劃をはじめ古くからの男兒を好む思考が大いに働いたと思われる。‘水子靈薦導齋’という儀礼は、墮胎と關わる悩みを抱えている韓國社會の女性たちにおいてその悩みから解放できる一つの解決策として活用さ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現在、韓國の仏敎寺刹では、‘水子’という言葉が墮胎兒を指す言葉として定着しつつある、同時に‘水子’を對象にする慰靈祭が一般に行われている。しかし、子供は祭祀(供養)の對象になれなかった韓國社會と仏敎社會であることから、その慰靈祭の方法としては、既存の薦導齋の議礼式に基づいた‘水子’という對象の薦導齋に変容されて行われている。

キーワード：水子、水子供養、落胎兒、水子靈薦導齋、死者儀禮、慰靈祭

투 고 : 2003. 11. 30

2차 심사 : 2003. 12. 19

3차 심사 : 2004. 1. 8

住 所 : (680 -01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1138-6

電 話 : 052-273-2345

E-mail : usdollar@hanmail.net